

국제사회의 ODA 추진 현황과 특징

권 율 국제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ykwon@kiep.go.kr, Tel: 3460-1060)

이주영 국제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jylee@kiep.go.kr, Tel: 3460-1253)

차 례 ● ● ●

1. 머리말
2. 국제사회의 ODA 추진 현황과 성과
3. 신규 DAC 가입국 현황과 특징
4. 정책적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감소하던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최근 회복추세를 보이면서 2013년 총 1,34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최근 발표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2013년도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ODA 총 규모는 전년대비 6.1% 확대되었으며, 이는 영국, 노르웨이 등 일부 공여국이 원조 예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임.
- ▶ 특히 DAC는 전통적인 선진 공여국 중심의 원조체제를 탈피하여 2013년 체코, 아이슬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5개국의 DAC 신규 가입을 승인하는 등 국제개발협력에서 신흥 공여국의 참여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DAC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신흥 공여국이 회원국으로 대거 가입하고 있으며, 2014년 7월에도 UAE가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DAC 참가국으로 신규로 승인됨.
- 아울러 국제사회의 원조공여 채널이 다양화되고 신흥 공여국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면서 ODA 규모 확대와 운용 효율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OECD DAC의 비회원국 포용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음.
- ▶ 한국의 경우 다양한 개발원조 주체의 참여와 국제개발협력 체제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DAC 회원국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ODA 규모 면에서 2013년 기준 전년대비 4.8% 증가하여, 2012년(+21.1%)보다 증가율은 낮으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
- 그러나 최근 회원국 신규 가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2010년 DAC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ODA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제도적·절차적 효율성을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모범적인 공여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1. 머리말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따르면 2013년도 DAC 회원국의 총 ODA 규모는 1,34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6.1% 증가하였고, 최근 신흥 공여국의 DAC 가입과 ODA 재원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의 원조체제(aid architecture)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유럽 재정위기 이후 둔화추세를 보이던 DAC 회원국의 ODA 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영국, 일본, 노르웨이 등 일부 선진 공여국들이 원조지출계획 이행을 위해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는 데다, 2013년 체코, 아이슬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DAC 신규 가입국이 늘어났기 때문임.

■ 우리나라가 2010년에 가입한 DAC는 개발협력을 위한 가치공유그룹(like-minded group)으로 선진 공여국 간 정책협의 및 조정을 담당하기 위해 1961년 설립되었으며, OECD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와 함께 3대 핵심 위원회에 해당

- 개발협력은 경제성장, 무역확대와 함께 OECD 3대 정책목표의 하나로, 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정책 협의 및 조정, 주요 지침의 이행을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OECD 여타 위원회와는 달리 일정한 가입 요건과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체코, 아이슬란드 등 5개국이 2013년 DAC에 새롭게 가입함에 따라 34개 OECD 회원국 중 DAC 회원국은 29 개국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 에스토니아는 아직 공식 가입을 미루고 있는 실정임.
- DAC 회원국의 전체 ODA 규모 중 신규 가입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비교적 견고한 정책적·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의 ODA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따라서 본고는 최근 발표된 ODA 통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DAC 신규 가입국인 5개 신흥 공여국들의 ODA 추진 현황 및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신흥 공여국들의 DAC 가입과 함께 개발도상국 지원이 활발해짐에 따라 신규 가입국의 주요 특징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자 함.

2. 국제사회의 ODA 추진 현황과 성과

■ 2014년 4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회원국 및 기타 공여국의 2013년도 ODA 잠정 통계를 발표함.

- 2013년도 DAC 회원국의 총 ODA 규모는 1,348억 달러이고, GNI 대비 ODA 비중은 DAC 평균 0.3%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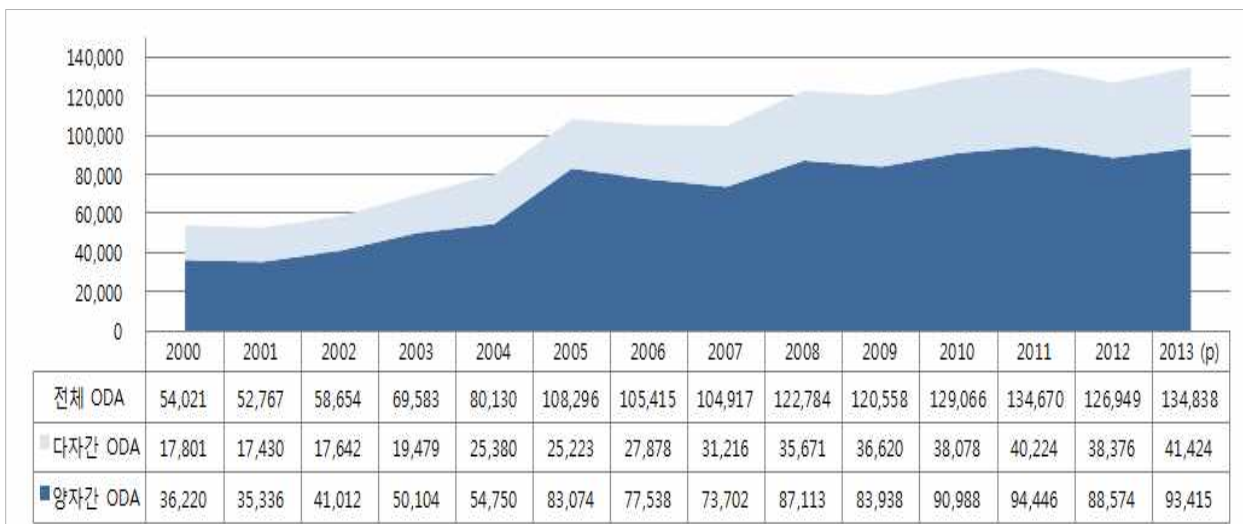
- 이번 통계에는 2013년 DAC에 신규 가입한 체코, 아이슬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12월 DAC의 29번째 회원국이 된 슬로베니아까지 총 5개국의 ODA 실적을 포함.¹⁾

■ 2000년 이후 DAC의 ODA 지원 규모는 대체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1,346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으나, 유럽 지역 공여국의 재정긴축 여파로 2012년에는 전년대비 3.6% 감소하였고,²⁾ 2013년에는 이전 수준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임(그림 1 참고).

- 2012년 ODA 규모의 감소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에서 원조 규모를 크게 줄인 데 기인하며, 영국(-0.5%), 프랑스(-1.4%), 독일(-2.0%)과 같은 대규모 원조 공여국들도 ODA 규모를 늘리지 못했기 때문임.
- 2013년 잠정치 기준 전년대비 증가 폭이 큰 국가는 일본(36.6%), 영국(27.8%), 노르웨이(16.4%) 등인데, 일본의 경우 채무 탕감 및 차관 확대, 영국은 ODA/GNI 0.7% 목표 달성을 위해 각각 원조지출을 확대했기 때문임. 이탈리아(13.4%)와 스페인(3.7%)도 다시 원조 규모를 늘렸음.

그림 1. DAC 회원국의 양자원조 · 다자원조 규모 변화(2000~12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CRS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4. 7. 5).

■ 공여국별 ODA 규모는 2013년 기준 미국 315.5억 달러, 영국 178.8억 달러, 독일 140.6억 달러, 일본 117.9억 달러 순이며, 한국은 17.4억 달러를 지원하여 전체 DAC 회원국 중 16위를 기록(그림 2 참고).

- DAC 회원국 중 G7 국가의 지원 비중은 70%, EU 회원국의 지원 비중은 52%임. 신규 회원국인 폴란드, 체코

1) DAC 회원국은 2014년 현재 총 29개국이며, EU를 제외한 국가만을 볼 경우 28개 회원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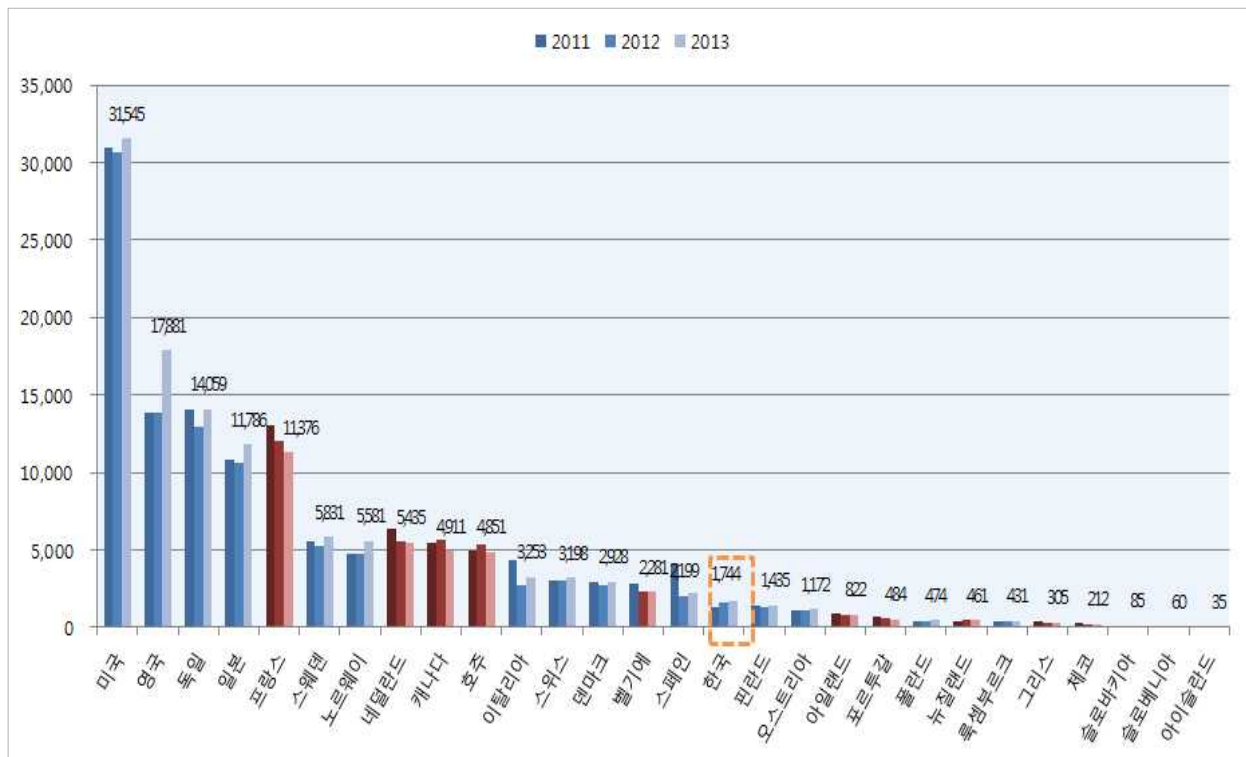
2) 증감률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을 반영(DAC 회원국 27개국 대상, EU 및 슬로베니아 제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의 ODA 규모는 각각 47억 달러, 21억 달러, 0.9억 달러, 0.6억 달러, 0.4억 달러로 전체 ODA 규모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 DAC에 가입한 EU 회원국 18개국 중 2013년에 새로 가입한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3개국의 비중은 전체 EU ODA 지원 규모(707억 달러)의 1.1% 수준(7.7억 달러)으로 매우 미미

그림 2. 공여국별 ODA 지원 규모(2011~13년)

(단위: 백만 달러)



주: 순지출 기준, ODA 규모는 2013년 잠정통계 기준임.
자료: OECD CRS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4. 7. 5).

- 2013년의 경우 EU를 제외한 28개 DAC 회원국 중 17개국이 ODA 규모를 확대하였으나, 11개국은 여전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ODA 규모 면에서 전년대비 가장 크게 감소한 포르투갈(▲20.4%)은 재정난으로 인해 ODA 예산을 대폭 줄였고, 캐나다(▲11.4), 프랑스(▲9.8%), 그리스(▲7.7%) 등의 순으로 원조 규모가 감소
- 그동안 한국은 ODA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6~11년 중 연평균 21.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왔으나, 2012년 21.1%에서 2013년에는 4.8%를 기록하여 원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음.

그림 3. DAC 회원국의 실질 ODA 증가율(2012, 2013년)

(단위: %)



자료: OECD aid statistics, Table 1, DAC Members' Net ODA in 2012 및 OECD(2014), Table 1, Net ODA from DAC and Other Donors in 2013(preliminary data for 201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데이터 업데이트: 2014. 4. 8).

■ 국별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ODA/GNI 비중은 2013년 기준 DAC 회원국 평균 0.3%를 기록하여, 전년대비(0.29%) 0.01%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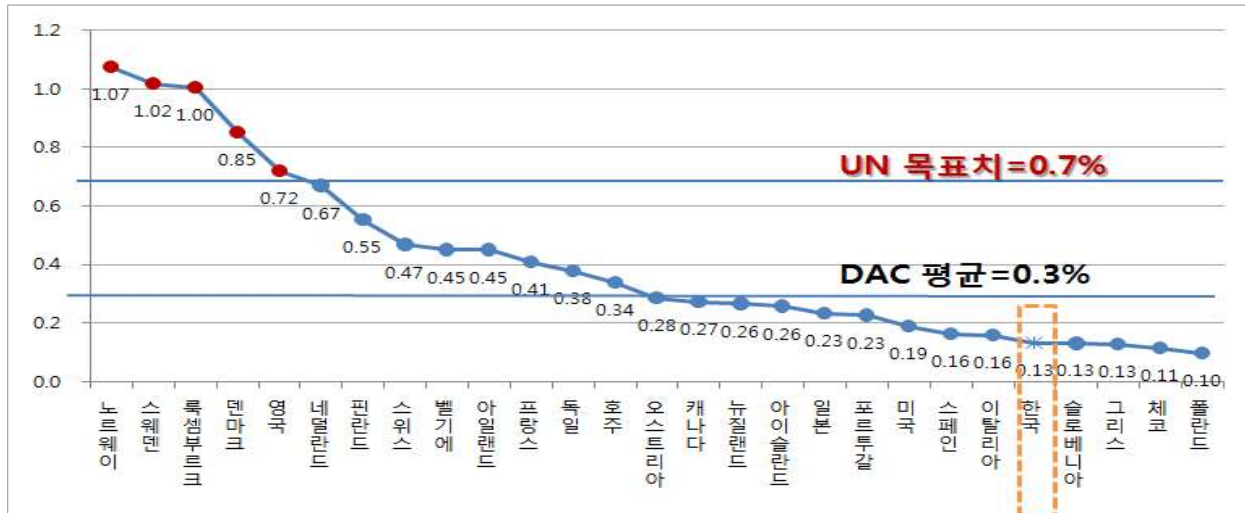
- 한국의 ODA/GNI 비중은 0.13%로 DAC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며, DAC 신규 회원국인 체코(0.11%)와 비슷한 실정임.
- ODA/GNI 비중이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1.07%), 스웨덴(1.02%), 룩셈부르크(1.00%), 덴마크(0.85%), 영국(0.72%) 순이며, 이 중 영국은 최초로 ODA/GNI 0.7% 목표치를 달성함.
- 네덜란드의 경우 2012년 ODA/GNI 비중이 0.71%였으나, 2013년 0.67%로 하락함. 이는 최근 3년간 원조 예산이 감소해왔기 때문이며, 네덜란드 정부는 향후 0.7% 목표를 달성하고 원조 시스템 개선과 ODA 레버리지 효과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³⁾

3) OECD Newsroom, "Aid to developing countries rebounds in 2013 to reach an all-time high,"

<http://www.oecd.org/newsroom/aid-to-developing-countries-rebounds-in-2013-to-reach-an-all-time-high.htm>(검색일: 2014. 7. 1).

그림 4. DAC 회원국의 ODA/GNI 비중(201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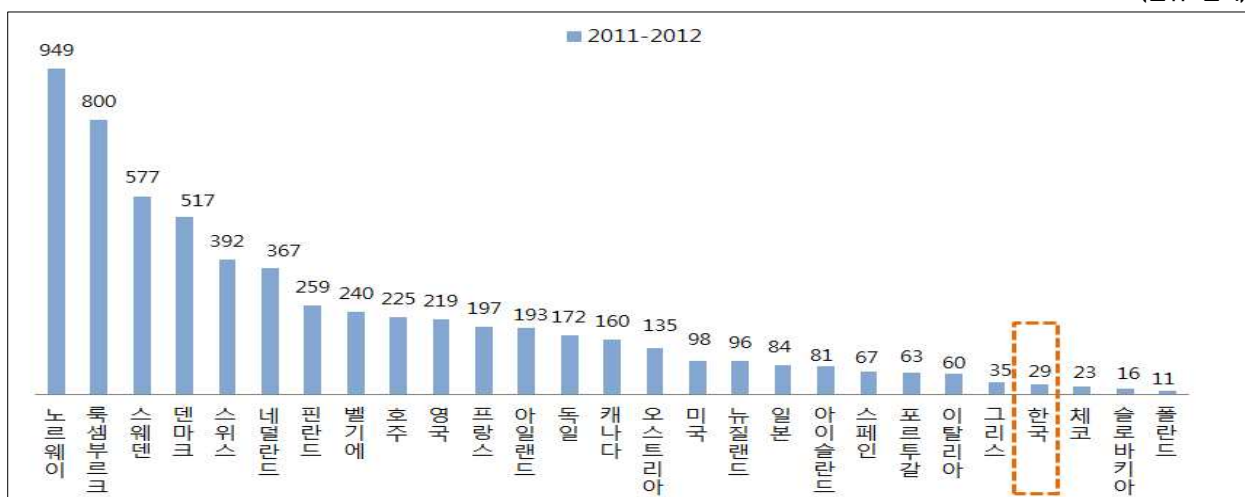


자료: OECD(2014), Table 1, Net ODA from DAC and Other Donors in 2013(preliminary data for 201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한국의 1인당 ODA 지출액은 2011~12년 평균 연간 29달러로, DAC 신규 가입국인 체코(23달러)와 유사하며, DAC 회원국 중 노르웨이(949달러), 룩셈부르크(800달러), 스웨덴(577달러), 덴마크(517달러)의 순으로 높았음.
- 한국의 ODA 지원 규모는 전체 DAC 회원국 중 16위이나, 1인당 원조는 24위로 낮은 편이며, 한국과 경제규모 및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유사한 스페인의 경우 1인당 연간 ODA 지출액이 67달러로 한국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

그림 5. DAC 회원국의 1인당 원조 지출액(2011~12년 평균)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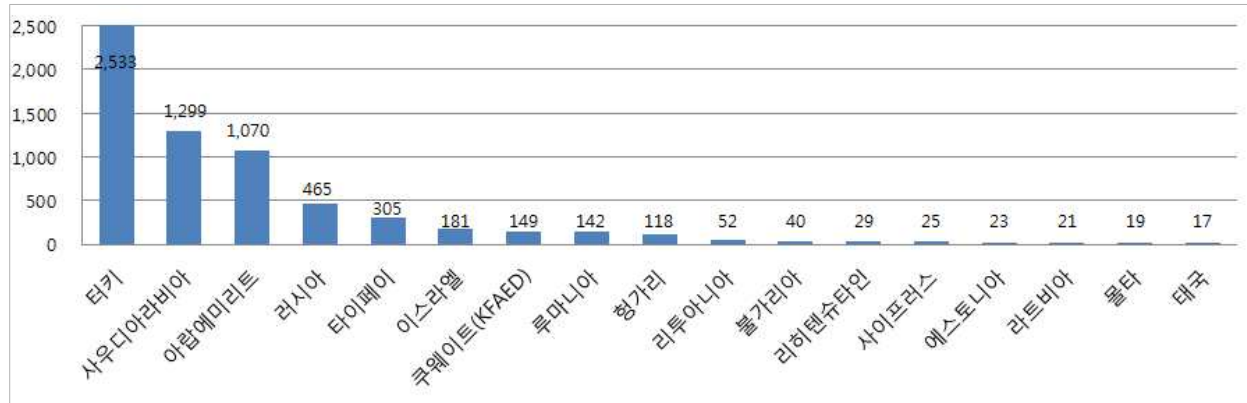


주: 순지출 기준, 2013년 12월 23일 업데이트된 통계치 사용.

자료: OECD aid statistics, Table 7, Burden Sharing Indicators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6. DAC 비회원국의 ODA 규모(2012년)

(단위: 백만 달러)



주: 순지출 기준, 2014년 6월 16일 업데이트된 통계치 사용.

자료: OECD aid statistics, "Aggregate data on non-DAC countries'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mes"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DAC 비회원국이지만 DAC에 원조 통계를 제공하는 국가 중에서 터키(25.3억 달러)와 사우디아라비아(13억 달러), 아랍에미리트(10.7억 달러)가 2012년도에 상대적으로 많은 ODA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고).

- 2012년 기준 아랍에미리트(UAE)의 ODA 지원액은 10.7억 달러로 나타났으나 연도별 편차가 컸으며, 2013년 잠정치에 따르면 전년대비 375.5% 증가한 50.9억으로 나타남.
- 아랍에미리트 ODA 지원 규모가 2013년도에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이집트에 대한 재정 및 인프라 지원 때문임. UAE의 ODA/GNI 비중은 2013년 1.25%로 UN 목표치를 크게 상회함. 다만 이러한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유지될지 여부는 불확실함.

■ 중국은 DAC 회원국이 아니지만 OECD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 DAC가 자체적으로 개발협력 양허성 자원흐름(총지출 규모)을 추정하고 있으며, 2012년 원조 규모는 총 28.5억 달러를 기록⁴⁾

- 이외에도 인도 6.5억 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 1.9억 달러, 인도네시아가 0.2억 달러의 원조 규모를 기록함.

■ OECD는 DAC 회원국뿐만 아니라 다자기구, 아랍 및 신흥 공여국, 민간 공여기구 등 총 75개 공여주체의 개발도상국 지원자금 규모를 공표하고 있는데,⁵⁾ 2012년 확정통계 결과는 2014년 12월 발간 예정인 OECD 개발협력보고서(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4)에 포함될 예정임.

4) OECD aid statistics, "Estimates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mes of Brazil, China, India, Indonesia and South Africa" (데이터 업데이트: 2014. 6); 중국 자료 출처: 중국 재무부 발간 재정연보(fiscal yearbook).

5) OECD DAC(2013), "Initial roadmap for improved DAC measurement and monitoring of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DAC Senior Level Meeting Issue Paper, p. 6 참조.

3. 신규 DAC 가입국 현황과 특징

■ OECD DAC는 2011년 12월 DAC 글로벌 관계전략(Global Relations Strategy: GRS)을 수립하고, 신흥 공여국의 신규 가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함(표 1 참고).

- GRS는 OECD/DAC 활동의 질을 높이고 비회원국 포용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수립되었으며, 향후 DAC의 전략적 파트너 선정, DAC 참여방법, 전략 이행방안 등을 포함
- 이에 따라 2013년에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5개국이 DAC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하였고,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DAC 가입요건을 충족하고 가입 의사를 표명한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2014년 7월 공식 DAC 참가국(participant)으로 승인되었음.
- 이러한 변화는 전통 공여국 중심의 원조체제를 탈피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책 대화와 지식 공유를 촉진하고,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DAC의 전략적 파트너로서는 OECD에 가입하지 않은 EU 회원국, 수원국이면서 공여국의 역할을 함께 하는 남남협력 국가들, 다양한 국제기구, 개발도상국, 민간 부문, 민간 재단, 시민사회기구 등이 있음.⁶⁾

표 1. DAC 비회원국의 참여방안

구분	특징
회원국	- 개발협력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전략정책프레임워크 보유 - 일정 수준의 원조 규모 유지 -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참가국	- DAC 가입요건에 부합하나 OECD에 미가입(분담금 납부 필요) - 회원국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 보유 - 일부 의사결정 참여 제한(신규 회원국의 OECD 가입 승인 결정 등)
정규 (regular) 옵서버	- OECD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 양자 공여국(예, 러시아,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는 국제기구의 DAC 참여 필요 시 정규 옵서버 자격 부여
임시 (ad hoc) 옵서버	- 특정 이슈에 대한 해당국·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DAC에서 임시 옵서버로 초청

자료: OECD DAC(2011), "DAC Global Relations Strategy"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DAC 신규 가입에 관련한 지침(Aide Memoire on the Admission of New DAC Membership, 2011)에 따르면 DAC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제도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이와 함께 일정한 원조 수준을 유지하고(예를 들어, ODA/GNI 비율이 0.20% 이상이거나 원조 규모가 1억 달러 이상),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보유해야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음.

6) OECD DAC(2011), "The DAC Global Relations Strategy."

- 가입 후에는 DAC의 언타이드 원조⁷⁾ 권고수준을 지키고, 국가 개발원조정책 수립에 DAC 문건과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며, 개발원조 통계를 보고하는 등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 앞서 본 바와 같이 DAC에는 2010년 우리나라가 가입한 이후 2013년 아이슬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슬로베니아가 차례로 가입하여 현재 총 회원국이 29개국에 달함.

- DAC 신규 가입국의 DAC 특별 검토 시기, 주요 가입조치, ODA 규모 등 주요 특징은 [표 2]와 같음.

표 2. DAC 신규 가입국의 주요 특징

국가	가입 (승인) 시기	DAC 특별 검토 실시	주요 가입조치	ODA 규모(2013) (만 달러)	ODA/GNI 비율(2013) (%)
아이슬란드	2013년 3월	2013년	- 전략적·법적·조직적 체제 정비 - 신규 가입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ODA/GNI 비중 유지 -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준비중	3,523	0.26
체코	2013년 5월	2007년	- 협력 대상국가 수 감소 - 개발협력 및 인도주의적 원조에 관한 법령 채택 - 체코개발기구(CzDA) 설립 - 외무부 중심의 원조체제 및 예산 개편	21,232	0.11
슬로바키아	2013년 9월	2011년	- 기존에 보유한 법적·정책적 기반 재평가 및 개선 예정 - 프로그램 운영의 내부적 효율성 개선 노력 - 지난 8년간 ODA 규모 급증 및 EU 목표치인 0.33% 달성의지 표명	8,538	0.09
폴란드	2013년 10월	2010년	- 다년도 개발협력 프로그램 수립 - 개발협력법 채택 및 개발협력 정책위원회 설립으로 정책 일관성 개선	47,431	0.10
슬로베니아	2013년 12월	2012년	- 법 개정 및 ODA 전략서의 중간검토를 통한 정책적·전략적 효과성 제고 - 외교부의 조정 역할 강화 및 8개 우선순위 국가에 원조 집중 -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6,023	0.13
한국	2009년 11월	2008년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채택 및 중장기 ODA 정책 개선 - 통합적 평가 시스템 수립 - 언타이드 수준 개선 등 ODA의 질적 제고	174,364	0.13

자료: DAC 통계 및 OECD(2012), "Moving towards accession to the DAC", Report on a workshop hos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nd European Affairs of the Slovak Republic(4 October, Bratislava)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7)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 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하는 경우를 타이드(tied, 구속성) 원조라 하고,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를 언타이드(untied) 원조라고 함.

■ **(아이슬란드)** 단일화된 추진체계와 다양한 협의체를 보유하고 ODA/GNI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최빈국에 ODA를 집중 지원하는 등 중점 지원국가 및 기구, 분야 등의 측면에서 독특한 전략을 구사

- 아이슬란드는 2008년 개발원조에 관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기존에는 양자원조에만 해당하던 개발 협력 관련 법률을 다자, 인도적 지원, 평화구축 활동에까지 포괄하도록 개정한 바 있음.
- 아이슬란드 정부는 개발원조의 전략적·법적·조직적 체제를 정비하고, ODA/GNI 비중을 DAC 신규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까지 높였으며, 현재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준비 중인데 DAC로부터 2013년 3월 가입승인을 받음.
- 2013년 잠정치에 의하면, 총 지원 규모는 3,523만 달러로 전년대비 27.4% 증가하였으며, ODA/GNI 비중은 0.26%로 높아져 한국(0.13%) 수준을 상회

■ **(체코)** 다원화된 추진체계와 분절된 ODA 예산을 조정하여 통합 추진체계를 마련하였고, 장학금 지원사업과 같은 중점 ODA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문서를 수립하여 ODA의 효과성을 집중적으로 개선

- 2007년까지 9개 관계부처가 외무부(MFA)와 함께 ODA를 지원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양자 원조사업을 모두 외무부로 이관하고 양자사업 및 기술협력 사업 실행기관으로 체코개발기구(CzDA)를 설립함으로써 통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함.
- 중점지원 프로그램 국가로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에티오피아, 몰도바, 몽골 5개국을 선정하여 각국에 대한 국별 전략을 수립하였고, 2011년 전체 ODA의 35%를 중점지원국에 지원함.
- 체코 정부는 장학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2012년에는 향후 5년간의 '정부 장학금 프로그램 전략'을 수립 함으로써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과정을 보다 단순화·객관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
- 2013년 기준 체코의 ODA 규모는 2억 1,232만 달러이며, 2005년 이후 GNI 대비 ODA 비중을 약 0.11~0.13% 내외로 유지하고 있음.

■ **(슬로바키아 공화국)** ODA를 소수의 개발도상국에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자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주변국에 전파하기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슬로바키아 정부는 지난 8년간 ODA 규모를 크게 증가시켰고, 경기회복 이후 EU 목표치인 ODA/GNI 0.33% 달성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2013년 9월 DAC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았음.
- 슬로바키아의 양자간 ODA는 주로 동유럽 및 발칸 주변국가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상위 10개 국가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전체 양자간 ODA의 81% 수준으로 집중도가 매우 높음.
 - 특히 슬로바키아의 경제체제 전환 경험 중 공공재정 개혁은 가장 성공적인 분야 중 하나로 평가됨.
- 총 ODA 규모는 2013년 기준 8,538만 달러로 소규모이나, 2004~08년 사이 약 2,800만 달러에서 9,200만 달러로 세 배가량 늘어나는 등 최근 ODA 증액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폴란드)** 체제전환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됨.

- 폴란드는 2011년 「개발협력법」을 제정하고 개발도상국의 민주화와 경제·사회 발전, 인도주의적 지원, 폴란드 국민의 인지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등에 주력
- 특히 폴란드의 정치적·경제적 체제전환 경험을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지역에 전파하는 프로젝트를 실시
- 2012년 폴란드의 ODA 지원 규모는 4억 2,106만 달러로, 뉴질랜드(4억 4,910만 달러), 룩셈부르크(3억 9,903만 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나, GNI 대비 ODA 비중이 0.09%로 DAC 회원국 중 슬로바키아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임.
- 폴란드 정부는 EU 목표치인 0.33%를 달성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어려우나 경기회복 시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힘.

■ **(슬로베니아)** 2013년 DAC 잠정치에 따르면 슬로베니아는 6,023만 달러의 ODA를 지원하여 DAC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작은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였으나, 지역적 우선순위와 전략적 지원분야에 따라 지원하여 ODA의 효과성 개선을 도모함.

- 슬로베니아는 DAC 가입요건 중 ODA 절대규모나 GNI 대비 ODA 비중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DAC는 경제위기 이전까지 슬로베니아의 ODA 규모 확대 노력과 향후 지원 약정액 규모를 감안하여 29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였음.
- 2011년에 DAC에서 시행한 슬로베니아 특별 검토(special review)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정부는 보유재원을 효과적·창의적으로 활용하여 ‘틈새(niche) 공여국’을 지향하도록 권고
- 이에 따라 슬로베니아는 2008년 의회에서 채택된 슬로베니아 국제개발협력 결의안에 대해 2013년 중간 검토를 실시하여, 전략별·지역별·분야별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기로 하였음.
- 슬로베니아는 2013년 기준 서발칸 지역 5개국, 동유럽 1개국, 아프리카 1개국에 지역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분야별로는 사회적 서비스, 경제적 서비스 및 인프라, 다부문 지원에 집중 지원하여 양자간 ODA의 80% 이상을 투입할 계획

4. 정책적 시사점

■ 신흥 공여국 및 대표적인 아랍 공여국의 DAC 참여와 함께 개발도상국 지원이 활발해짐에 따라 선진 공여국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 공여주체의 다변화와 신흥 공여국의 참여 확대, 다자기구 및 주제별 기금의 영향력 증대 등 국제원조체제의 다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개발재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제도적·절차적 효율성을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모범적

인 공여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ODA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 및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개발재원을 확보하고, 협력 파트너로서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최근 신규 가입국이 크게 늘어나면서 2010년 DAC에 가입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므로, ODA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수준을 보다 향상시켜야 할 것임.

- DAC 신규 가입국들은 자국의 발전 경험 공유(폴란드, 슬로바키아), 비교우위 분야 우선 지원(아이슬란드), 틈새 공여국으로서의 역할 정립(슬로베니아) 등 기존의 전통 공여국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ODA를 지원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중점 지원국 및 지원 분야, 지원기구를 최소화하여 소규모 ODA 지원액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2011년 우리나라의 최빈국(LDC)에 대한 지원 규모는 전체 ODA의 34.1%로, 2007년의 23.5%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중점 지원국에 대한 지원전략 개선 등을 통해 ODA의 질적 조건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OECD의 2013년 ‘개발협력보고서(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에서는 한국이 ODA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⁸⁾가 2007년 37개에서 2011년 30개 국가로 감소했지만, 기타 지원국은 40개에서 54개국으로 늘어나 지리적 분절성이 높아졌음을 지적한 바 있음.

■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원조체제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이후 새로운 도전과제와 이행수단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므로, 한국의 ODA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함.

- 국제적으로 선진 공여국 중심의 원조체제를 벗어나 원조공여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고, 경제개발, 지속가능한 환경, 평화와 안보라는 기본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는 Post-2015 개발의제는 협력분야와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조정책 방향도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KIEP

8) OECD에서는 공여국별 ODA 지원 분절성을 CPA(Country Programmable Aid, 수원국별 실질적인 지원 규모) 매트릭스를 통해 평가하고 있음. 즉 한국이 각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CPA의 평균 이상을 받는 수원국이 있을 경우, 또는 특정 수원국에서 한국이 90% 이상의 누적 CPA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과 수원국 간 ODA 집중도가 높다(‘significant relation’)고 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OECD(2008), Report of 2008 Survey of Aid Allocation Policies and Indicative Forward Spending Plans, p. 14 참고.